

법률복지



KOREA FAMILY LEGAL SERVICE CENTER



이 지구상에 굶주리는 어린이 한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랑의 어머니 GCF 방숙자 명예이사장님 영전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돈이 없고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조차 알지 못하는 분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 · 조력 · 소송구조를 해드립니다.

• 상담방법 : 면접, 전화, 서신, 지상, 출장, 온라인상담

• 상담안내 :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 10시~12시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6 산호빌딩 2,4층 전화 : 2697-0155, 3675-0142~3/ 팩스 : 3675-0175
전화 : 2646-1611 (교육원)
www.lawqa.or.kr / E-mail: lawqa@chol.com

2021년 전기 정기이사회 Zoom 화상회의 개최

설 연휴 이후에도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시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본 상담원의 2021년 전기 정기이사회를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에 Zoom을 이용한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박종렬·경수근·민경도·박현순·송상현·양정자·이재연·전원숙·최금숙 이사와 노옥섭 감사, 이향주 상담실장과 고은지 상담위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전기이사회에는 2020년 감사보고 및 사업보고가 이루어졌고, 2020년 결산안 등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2021년 정기총회 역시 Zoom을 이용한 화상회의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송상현 이사, 회고록 출간

본 상담원 이사이신 송상현 제2대 국제형사재판소장이 회고록 『고독한 도전, 정의의 길을 열다』를 출간했다.

송상현 이사는 서울대 법대 교수 및 학장으로 35년간 후학 양성에 힘썼고, 2002년 신설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초대재판관 및 재판소장으로 12년간 봉사하였다. 회고록은 송상현 이사가 신설 국제사법기구의 수장으로 일하며 남긴 비망록과 평소의 일기를 토대로 1천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기록으로, 평생 정도(正道)를 지키며 인류 평화와 한국법학의 발전에 헌신한 지난 80년이 특유의 솔직담백한 문체로 담겨 있다.



박요일 교육원장, 십계명 특강 출간

본 상담원의 교육원장이신 박요일 (사)강성성경연구원 이사장이 기독교 신앙인들의 성경 교육을 위해 『십계명 특강』을 출간하였다.

박요일 교육원장은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바른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생활의 모범된 규범은 무엇인지 물으며 성경의 십계명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정숙 소장((사)경기가정상담소 소장) 상담원 본원 고문 위촉

이정숙 (사)경기가정상담소 소장 (前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부)이 본 상담원의 법률구조사업에 뜻을 함께하며 본원 고문 위촉을 수락하였다.

이정숙 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신 고 이태영 박사가 여성의 법적 지위 향상과 소외계층의 인권옹호와 회복을 위해 창설한 법률구조기관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창설목적에 찬동하여 1985년 부설 교육원 부원장으로 책임을 맡아, 특히 사별(死別)로 고통 받는 여성과 그 아이들을 돋기 위해 기려기교실을 개설하여 친정어머니 역할을 해주신 분이다.

또한 고 이태영 소장과 본원 양정자 원장(당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지부설치 담당 부소장)과 함께 특히 경기도에서 제일 취약 지구였던 성남에 사재를 털어 시민들이 가장 찾기 쉬운 시청 앞 건물을 얻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부를 1987년 9월 개설하여 소장 및 운영이사로 현재까지 35년 넘게 법률구조사업에 헌신하고 있다.

특히 이정숙 고문은 이화여대 약학대학 및 동 대학원을 마치신 법을 전공한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력이 있거나 없거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권이 모두 보장되는 이상적인 사회를 위해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구조사업과 법의 서민화 운동에 앞장서 오셨고, 본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지체 없이 달려가 도움을 주고 있다.

김상용 자문위원, 개정 친족상속법 출간

본 상담원의 국내 자문위원이신 김상용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친족상속법(제17판)』을 출간하였다.

이번 개정판에는 이혼 후 연금재산 분할, 부모-자녀 관계의 '혈연'의 의미, 배우자의 기여분 등 지난 1년 간 친족상속법 분야에 의미 있는 여러 사건의 대법원 판결들을 수록하고 관련 이론을 보완·설명하며 사회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가족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루었다.

